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26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83.55원 (+1.15원)

KOSPI

6,742.74 (+45.78, +0.68%)

KOSDAQ

827.15(+13.82, +1.70%)

국고채 10년 금리

4.320(-0.01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속도전 [김상만]
실전 퀀트(Quant MP)	고금리의 산물, 종목 장세 [이경수]
하나채권	TGA 활용의 진의는 만기 축소. 연준과의 공조로 이어질까 [박준우]

기업분석

삼양식품	NDR후기: 지역 다변화 + 신공장 가동 기대감 [심은주]
심텍	시설 투자 공시 코멘트 [김민경]

글로벌리서치

뉴코어	건조한 내수 기반 실적 개선 확인 [박성봉]
강사부홀딩스	1H26 Re: 손익 기대치 상회 [심은주]
유니프레지던트	1H26 Re: 시장 기대치 부합 [심은주]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NAVER, 대한항공, KCC, DN오tomotrb, 농심, SK이터닉스, 실리콘투, 티에프이

하나증권

2026년 8월 26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rediVille

속도전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

크레딧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7월 이후 신용스프레드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강세전환의 성격보다는 상승을 멈추고 다음 갈 길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편이 보다 적절한 상황이다. 단기구간 신용스프레드는 단기변수를 소재 삼아 등락을 보이기도 하지만 추세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중기물 이상은 그런 등락마저도 보이지 않는 수동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크레딧시장은 연중 내내 좀처럼 강세전환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분기에는 금리상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행을 미루면서 시장이 침체되었고 2분기에는 잇따른 신용이벤트 발생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투자심리를 짓 눌렸다. 게다가 장단기금리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발행주체들(특히 회사채)의 소극성이 또 다른 시장침체의 주요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차만 놓고 보면 단기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득이겠으나 단기(조달)비중 증가는 그 나름의 단점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리면에서야 비용절감효과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차환부담이 있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차환 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결국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단기금리차가 현재보다 많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간 갭을 줄일 수 있는 주요 후보 중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일 것이다. 현 사이클에서 기준금리의 최종 귀착지가 어디가 될지는 알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장단기금리갭이 줄어들 수 있다면 발행시장은 보다 활기를 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현재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차이 또한 큰 상황이라 한두 번 인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인상 폭 뿐만 아니라 속도 또한 중요하다. 연말까지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생각해보면 연내 추세변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더 달아나 버린다면 이마저 소용없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자)

아무튼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상황이 의미있게 반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수급결정의 핵심인 초우량물(은행/공사채)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발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채의 경우 특수은행은 (원래 걱정했던 산금채, 수은채보다) 증금채의 발행세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시중은행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는 발행수요가 커질 공산이 크다. 공사채는 부동산대책 실시의 영향으로 부동산관련 공기업들의 발행이 당초 예상되었던 수준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올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시장(금리)구조가 속도감 있게 변하지 않으면 장세전환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질 것이다. 다른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026년 8월 26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실전 퀀트(Quant MP)

고금리의 산물, 종목 장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APEX 과도한 빅테크 기업의 4분기 계절성

8월 시장은 글로벌 CAPEX 부담이 큰 빅테크 기업들이 고금리 환경에 고착되면서, 그 수급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낙수효과로 종목 장세가 형성된 국면.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특징이며, 8월 미국 고CAPEX 팩터의 부진과 금리와의 뚜렷한 역상관이 이를 뒷받침.

여기에 계절성까지 존재. 미국의 고CAPEX(시총 대비) 및 CAPEX 증가 팩터는 9월부터 연말까지 부진한 경향을 반복. 배경에는 1~3분기 동안 '추정치'로 계상되던 비용이 회계연도 말에 실제치로 정산되면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에 내재된 발생주의 추정치가 4분기에 대거 확정. Binz & Kapons(2025)는 이 4분기 이익 효과가 중간분기 대비 평균 46.9%에 달하며, 원가 추정 역량과 내부 정보시스템 품질이 낮은 기업일수록 두드러진다는 점을 실증. 쉽게 말해, CAPEX가 과도한 기업일수록 4분기 FCF 훼손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결국 고CAPEX 미국 빅테크는 고금리 부담과 연말 비용 확정 계절성이 겹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어 강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 8월부터 국내외에서 나타난 수급 낙수효과가 이어질 가능성.

알파 전략의 핵심 변수는 다시 '금리'

미국 금리는 하락 전환이 쉽지 않은 복잡한 구조라고 판단. 지금의 금리 상승은 경기 개선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조합이라는 점에서 미 국채 수요 부진이 본질. 금리 상승이 실질금리나 성장 기대가 아니라 텀 프리미엄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뜻. 이는 미국 부채 문제와 지정학 리스크 등이라는 난제로 단기 해소가 어려움.

또한 미 재무부의 장기물 바이백 증액과 이에 TGA 잔고까지 동원될 경우 침체가 아닌 현 국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소지.

결국 당분간 이어질 '고금리 + 달러 약세'라는 특이한 조합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알파 전략을 취하는 것이 9월 HANA Quant MP의 핵심.

금리 축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둘 때, 매크로 환경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유리한 핵심 스타일은 순 현금 상위, 실적 상향, FCF 상위. 여기에 차상위 매치 팩터인 저PBR 및 목표주가 괴리를 상위, 기관 순매수 상위 등이 유리한 국면(DLI앤씨, 농심, LG생활건강, 삼성화재, 삼성E&A, GS, 한국엔컴퍼니, 삼성에스디에스, OCI홀딩스 등). 지금의 종목 장세는 유동성이 풀려서가 아니라 고금리가 만든 '차별화'의 결과, 단순 내러티브 컨셉의 고베타 및 거래대금 상위 등으로의 접근 지양.

위의 알파 전략이 추가 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중립보다 소폭 오버웨이트 포지션을 유지, 1) 상반기 '고금리 = 퀄리티' 선호의 미국 스타일 흐름이 재차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국내 시장 전이 가능성, 2) 잭슨홀 미팅 혹은 9월 FOMC, 지정학 리스크 완화, 미중 정상회담 등 이벤트로 금리 하락 전환 컨센서스 형성시 가장 큰 수혜, 3) 금리 안정화로 인한 개인의 주식 머니무브 2차 페이지 발생 및 외인 매수 폭증 등의 베타 확산 가능성 헷지 등의 의미.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2026년 8월 25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채권

TGA 활용의 진의는 만기 축소. 연준과의 공조로 이어질까

- 바이백의 순발행 영향 無 ‘만기 축소’ 여부가 핵심.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유사
- TGA 언급은 단기채 비중 확대 가능성으로 해석. TGA 규모보다 실제 바이백 규모가 중요
- 향후 단기채 발행 확대 시 연준이 단기자금 시장 안정 위해 RMP 재개할 가능성
- 재무부의 만기 축소 + 연준의 단기채 매입 = 강력한 장기금리 안정 및 부양 정책

국채 ‘만기 축소’는 사실상 ‘공급 감소’ 효과를 발휘

국채 바이백은 연간 국채 발행 규모에 영향이 없다. 국채 발행 규모는 입법부(미국 의회, 한국 국회)의 세수/세출 계획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며, 행정부(미국 재무부, 한국 재경부)는 그 계획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을 실행할 뿐이다. 다만 행정부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도구들을 통해 국채의 발행/잔존 만기 구조 결정, 상환 일정 조정(만기 분산 등), 유동성 제고 등의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금융시장에 중요한 정책은 ‘만기 구조’다.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은 ‘채권 공급 규모 x 듀레이션(≒만기)’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 리스크가 커지므로, 국채 평균 만기가 길어질수록 시장이 감내해야 하는 금리 리스크가 커진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반대로 만기가 짧을수록 시장의 듀레이션(금리 리스크) 부담은 감소한다. 따라서 만기 축소는 실질적으로 채권 공급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재무부의 만기 축소 vs.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QE)는 ‘중장기’ 국채를 매입하므로 민간이 보유해야 하는 실질적인 공급 규모를 줄이고 듀레이션까지 축소시키는 강력한 금리 안정화 정책이다. 반면 단기물을 매도하고 장기물을 매수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는 공급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만기를 줄이는 효과를 통해 QE와 유사한 효과를 도모한다.

재무부도 공급 규모를 바꾸지 않더라도 만기 구조를 단축시킴으로써 금리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수년간 옐런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coupon(이표채) 발행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Bills 비중을 확대하여 만기를 축소하여 금리를 낮추는 전략이다. 양적완화(QE)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와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스티븐 마이런 전 연준 이사는 이를 Treasury Activist Issuance(적극적 국채 발행 정책)으로 명명했고, 시장은 이를 ‘stealth-QE’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렇다면 최근 재무부의 바이백 규모 확대, 그리고 전일 약 1조 달러의 TGA(Treasury General Account)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park@hanafn.com

바이백 확대와 TGA 활용의 연결고리는 ‘단기 구조’.

지난주 재무부는 초장기물 국채에 대한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백의 재원은 또다시 국채 발행이 필요하므로 국채 발행 ‘규모’에는 변화가 없는 정책이다. 금리 영향은 (1) 유동성 제고 효과와 (2) 단기 구조 변경 가능성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유동성이 저하된 off-the-run 채권들을 매입하므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다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단기 구조 변경 가능성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바이백 정책의 원칙 중 하나는 ‘WAM(가중평균단기) 중립적(neutral)’이라는 점이다. 바이백의 목적은 유동성 제고(liquidity support)나 현금 관리(cash management)이므로 국채 단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 정책을 두고 ‘treasury twist’라고 설명하면서 연준의 operation twist를 떠올리게 했다. 금리 안정에 진심인 재무부의 최근 행보를 고려할 때, 바이백의 원칙을 우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바이백 확대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를 발행하여 초장기물을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초장기 금리 하락).

8월 24일에는 재무부가 연준에 현금을 쌓아 두는 TGA(Treasury General Account)를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TGA에 쌓인 약 1조 달러의 현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기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주일 동안 정부 지출이나 국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TGA에 쌓아 둔다. 따라서 국채 바이백을 위해 TGA를 활용하더라도 TGA 잔액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기 국채를 발행해 TGA를 다시 목표 수준(\$950bn)으로 유지해야 한다.

‘1조 달러’는 무의미. 바이백 규모가 중요하며 연준의 RMP 재개 가능성에 주목

결국 TGA를 활용하더라도 약 1조 달러라는 수치는 무의미하다. 실제 바이백 규모를 얼마나 실시하는지에 따라 TGA 활용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이백이 실행되면 유사한 초장기물 발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물 발행을 통해 TGA를 다시 확충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2011년 9월에 발표한 1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약 3개 분기 동안 \$400bn 규모로 진행됐다. 지금은 국채 시장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바이백 증액 규모도 분기당 \$20bn 수준이다. 향후 실제 바이백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장기금리 레벨을 크게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향후 주목해야 할 변수는 연준의 RMP(Reserve Management Purchases) 재개 가능성이다. 만약 재무부가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단기 국채 공급을 증가시켜 단기자금 금리 상승을 유발한다. 단기자금 시장은 T-Bill, SOFR 등 다양한 금리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다. 만약 재무부가 단기 국채 발행을 급격히 늘리면 ‘T-Bills 금리 상승 -> T-Bills 수요 확대 & Repo 수요 감소 -> Repo 금리 상승’ 등 단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RMP를 실행한 바 있다.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높아질 경우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RMP 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준(워시)과 재무부(베센트)가 공조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주입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금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부작용은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이나 본 자료에서는 다루지 않음).

2026년 8월 26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800,000원
현재주가(8.25) 1,430,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742.74
52주 최고/최저(원)	1,630,000/1,022,000
시가총액(십억원)	10,772.2
시가총액비중(%)	0.19
발행주식수(천주)	7,533.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0.9
외국인지분율(%)	17.84
주요주주 지분율(%)	
삼양푸드스퀘어 외 6 인	44.98
국민연금공단	11.0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126.9	3,750.6
영업이익(십억원)	732.2	891.8
순이익(십억원)	564.5	675.0
EPS(원)	74,962	89,705
BPS(원)	235,199	318,88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28.0	2,351.8	3,111.5	3,766.5
영업이익	344.6	524.2	728.0	877.9
세전이익	351.6	516.9	739.8	892.9
순이익	272.0	389.4	555.4	677.2
EPS	36,106	51,697	73,725	89,903
증감율	115.42	43.18	42.61	21.94
PER	21.19	23.81	19.04	15.62
PBR	7.00	7.39	5.98	4.42
EV/EBITDA	14.87	16.01	12.93	10.30
ROE	39.37	37.59	36.72	32.52
BPS	109,340	166,650	234,875	317,979
DPS	3,300	4,800	6,200	7,4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삼양식품(003230)**NDR후기: 지역 다변화 + 신공장 가동 기대감****지역 다변화로 중장기 높은 확장성 보유**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703억원(YoY 39.3%), 1,762억원(YoY 46.7%, OPM 22.9%)을 시현했다. 일회성 성격인 약 50억원의 비용 지출 감안시 손익 체력은 1,800억원 이상으로 Level-up 되었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6,458억원을 시현했다. 미국 및 중국이 각각 YoY 54.2%, 44.1% 성장해 여전히 전사 성장을 견인했다. 참고로, 미국 및 중국 향 수출액은 각각 2,036억원, 1,810억원이다. 유럽 향 수출이 분기 1천억원을 돌파해 유의미한 성장 축으로 부상한 점이 인상적이다. 유럽은 연간 인당 라면 소비량이 주요 아시아 국가 평균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및 남미 국가들이 연간 13개 내외 라면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럽 주요 국가들은 연간 4개 내외 라면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유럽 내 커버리지 국가 수도 작지만, 침투율 및 성장성 감안하면 미국 및 중국을 뛰어넘을 만한 확장성을 보유했다고 판단된다. 남미(멕시코)는 2분기 'OXXO' 유통 채널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미주 법인 실적 개선에 일조했다.

중국 신공장 가동 스케줄 업데이트

중국 신공장은 총 11.3억 개비 생산 설비를 보유했다. 내년 초 시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ramp-up 생산까지 밀양 공장과 유사한 시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 고정비 증가(감가 약 30억원 추산)를 감안하더라도 매출 증분을 통한 이익 레버리지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에서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밀양에서의 여유 생산은 미국 및 유럽의 침투율 상승에 할애될 전망이다.

3Q26 Pre: 시장 기대 부합 예상

3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8,114억원(YoY 28.4%), 1,875억원(YoY 43.2%)로 추정한다. 이는 미국 관세 환급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며 환급 시기는 미정이다. 관세청에 의하면, 7월 라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해 시장 기대를 다소 하회했다. 이는 태풍 영향으로 선적이 지연된 영향으로 해석되며, '불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한다. 미국 내 월마트 동일 점포 내 성장이 2Q YoY 14% 나온 것으로 추산되며, 글로벌 라면 Peer 대비 압도적 매출 성장을 시현한 점(도표 3 참고)이 이를 방증한다.

2026년 8월 26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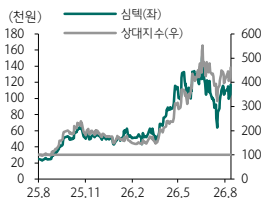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70,000원
현재주가(8.25) 116,9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7.15
52주 최고/최저(원)	157,300/24,250
시가총액(십억원)	4,379.5
시가총액비중(%)	0.96
발행주식수(천주)	37,974.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03.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2.6
외국인지분율(%)	11.72
주요주주 지분율(%)	
심텍홀딩스 외 5인	32.20
삼성자산운용	6.9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073.8	2,490.5
영업이익(십억원)	245.4	407.4
순이익(십억원)	190.2	324.3
EPS(원)	4,979	8,354
BPS(원)	19,914	28,33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231.4	1,410.6	2,123.4	2,579.3
영업이익	(47.0)	11.9	258.5	472.2
세전이익	(25.1)	(176.7)	285.2	500.8
순이익	(30.3)	(164.2)	218.8	394.5
EPS	(953)	(4,955)	5,845	10,529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80.14
PER	(11.57)	(9.96)	20.00	11.10
PBR	0.79	3.20	5.47	3.69
EV/EBITDA	20.79	24.09	12.26	6.97
ROE	(6.63)	(32.10)	31.79	39.68
BPS	14,043	15,418	21,374	31,704
DPS	100	100	200	300



Analyst 김민정 minkyung.kim@hanafn.com

심텍 (222800)**시설 투자 공시 코멘트****2,700억원 규모 시설투자 발표**

심텍은 금일 공시를 통해 총 2,742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발표했다. 투자 목적은 SOCAMM 모듈 기반 전용 공장 신설과 고다층 MSAP 기반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2028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듈 PCB(HDI)에는 SOCAMM 전용 공장의 토지·건물을 포함해 1,459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50%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AI 서버용 SOCAMM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용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MSAP 및 System IC에는 각각 1,051억원과 232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각각 10%, 25% 확대할 예정이다. 26년 2분기 패키지 기반 가동률이 70% 후반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확대를 결정한 배경은 SOCAMM 수요 증가가 MCP를 비롯한 메모리 패키지 기반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System IC 기반 또한 기존 웨어러블용 SiP뿐 아니라 모바일용 RF SiP 공급을 확대해 제품 믹스와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조달시에도 중장기 주가 방향성은 우상향

심텍은 금번 시설투자 재원을 내부 유보자금 또는 외부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유상증자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만큼 영업현금흐름을 활용한 자체 자금과 CB 등 외부조달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으로 총 시설투자비 2,700억원을 전액 CB로 조달하고, 현 주가 수준의 전환가액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25만주의 잠재주식이 추가된다. 여기에 기존 7회차 CB 500억원의 전환 가능 주식 약 232만주까지 포함하면 완전희석 기준 시가총액은 약 4.9조원으로 추정된다. 당사의 2027년 지배주주순이익 추정치 3,945억원을 적용한 완전희석 PER은 약 12.5배로, 조달 이전 대비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은 불가피하다. 다만 외부자금 조달에 따른 잠재주식 증가를 전부 반영하더라도 중장기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AI 서버 내 메모리 채용량 증가를 기반으로 메모리 패키지기판과 모듈 PCB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번 증설을 통해 확보한 신규 생산능력은 2028년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SOCAMM 및 고다층 MSAP 수요가 예상대로 확대될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가동률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2028년 이후 이익 추정치가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CB 발행조건과 전환 물량에 따른 희석 및 오버행 부담이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 주가 방향성은 희석 규모보다 증설 이후의 매출 확대와 이익률 개선 폭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08월 26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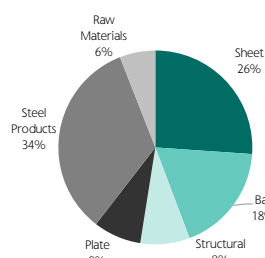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87.00 USD
CP(8.24) 244.64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금속 & 재량
홈페이지	nucor.com
시가총액(십억USD)	55.5
시가총액(조원)	76.9
52주최고/최저(USD)	280.11/131.32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13.37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	11.13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2) 39.7 63.6
상대	(4.4) 28.6 44.7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0,734	32,494	40,017	40,707
영업이익	2,842	2,592	6,090	6,015
순이익	2,027	1,744	4,232	4,170
EPS(USD)	10.8	9.4	18.7	19.0
EPS(YOY, %)	(43.8)	(13.2)	99.2	2.0
ROE(%)	9.8	8.4	18.2	16.5
PER(배)	10.8	17.4	13.1	12.8
PBR(배)	1.3	1.8	2.3	2.0
배당률(%)	1.2	1.4	0.9	0.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뉴코어(NUE. US)

견조한 내수 기반 실적 개선 확인

미국 내 타이트한 철강 수급으로 역대 최고 출하 기록

2분기 뉴코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4억달러(YoY +23.0%, QoQ +9.5%)와 16.3억 달러(YoY +79.4%, QoQ +47.0%)를 기록했다. 데이터센터용 인프라인 스테인리스강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자동차용 소재 수요까지 회복하면서 Steel Mill 부문 출하량은 710만톤(YoY +9.7%, QoQ +0.8%)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teel Product 부문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용 구조물과 국경 장벽용 강관 수요 회복으로 128만톤(YoY +12.6%, QoQ +10.9%)을 출하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철강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철강 수입 감소와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미국내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뉴코어의 2분기 Steel Mill 부문 ASP 또한 1,145달러/톤(YoY +6.6%, QoQ +10.0%)으로 상승하면서 스프레드도 확대됐다.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분기 평균 가동률도 91%(YoY +6%p, QoQ +5%p)로 상승하면서 고정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원인으로 작용했다.

3Q26에도 ASP 상승과 판매 증가 지속될 것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관련 인프라 수요 회복으로 지난 1분기 470만톤이었던 Steel Mill 부문의 수주잔고가 2분기에는 560만톤 수준으로 증가했고, Steel Product 부문의 수주잔고 또한 전분기대비 10% 증가했다. 수주잔고 증가는 하반기 실적의 가시성을 높임과 동시에 뉴코어의 공급 능력을 상회하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안정적인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뉴코어는 2분기에도 판매가격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가격 인상분이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약 1분기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3분기 ASP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분기 강세였던 스크랩 가격이 최근 약세로 전환되면서 스프레드 확대도 기대된다. 아울러 신설한 인디애나 도금 공장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진입하고 브란덴부르크 후판 공장의 생산도 안정화되면서 3분기 생산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3분기에는 ASP 상승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회복 국면 속 생산 능력 확보 긍정적

데이터센터용 강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2분기 자동차강판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6% 증가했으며 6월 서비스센터용 출하량도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하면서 미국 주요 전방산업에서 철강 수요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신설되는 West Virginia 판재 공장은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과 단계적 램프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요 회복 국면에서 판매량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주요 생산능력 신규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CapEx도 크게 완화됐는데, 2분기 CapEx는 5.71억달러(YoY -40.1%, QoQ -13.6%)로 큰 폭 감소한 반면, FCF는 8.29억 달러(YoY 흑전, QoQ +268.4%)로 개선되었다. 2분기 총주주환원율이 41%였던 점을 고려하면 확대된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 강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6년 8월 26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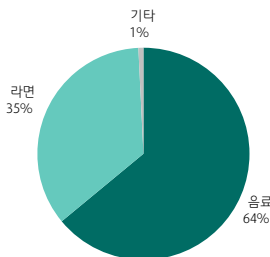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14.07 HKD
CP(08.25) 13.15 HKD

Key Data

국가	CHINA
상장거래소	Hong Kong
산업 분류	필수소비재
주요 영업	식품
홈페이지	www.masterkong.com.cn
시가총액(HKD)	74.1
시가총액(조원)	13.1
52주최고/최저()	14.14/9.42
주요주주 지분율(%)	
Ting Hsin Cayman Islands Holding C	33.40
Sanyo Foods Co Ltd/Ichikawa	33.4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8.1 3.0 20.4
상대	15.9 7.0 21.7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80,651	79,068	80,487	82,473
영업이익	5,913	6,516	7,100	7,420
순이익	3,734	4,501	4,533	4,759
EPS(CNY)	0.7	0.8	0.8	0.9
EPS(YOY, %)	19.9	13.6	7.3	5.6
ROE(%)	26.6	30.8	29.5	30.7
PER(배)	14.3	13.3	14.5	13.7
PBR(배)	3.8	4.0	4.3	4.1
배당률(%)	3.5	3.8	6.8	7.1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강사부홀딩스 (322.HK)

1H26 Re: 손익 기대치 상회

1H26 Re: 손익 기대치 상회

1H26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05.5억위안(YoY 1.1%), 38.0억위안(YoY 14.7%)을 기록했다. 탑라인은 다소 부진했지만, 수익성 개선 흐름은 지속됐다. 매출총이익률은 PET와 설탕 등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 및 제품 믹스 개선 기인해 35.8%(YoY 1.3%p, QoQ 0.6%p up)를 기록했다.

① 음료 부문 매출액은 YoY 0.7% 증가했다. RTD 차/생수/주스/탄산 및 기타 매출은 각각 YoY 9.1%/-5.0%/-13.0%/-2.8% 증감했다. RTD 차는 아이스티 및 자스민차 시리즈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시현했다. 신제품 출시 및 대용량 제품 판매 호조도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RTD 차와 기능성 음료를 결합한 신규 카테고리 음료인 'KSF Energy Iced Tea'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생수 및 주스는 음료 시장 경쟁 심화 및 2분기 비우호적인 기후 영향으로 부진했다. 저당 및 무설탕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성장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탄산 및 기타는 'Pepsi' 및 'Sting'의 판촉 확대에도 매출이 감소했다. 음료 총마진은 YoY 0.7%p 증가했다. 5월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PET 재고로 원부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했다. ② 라면 부문 매출액은 YoY 2.0% 증가했다. 카테고리별로는 용기면/고급면/일반면 매출이 각각 YoY 0.6%/3.3%/2.8% 증가했다. 모든 제품군에서 성장을 기록했다. 5위안 이상 제품 매출이 두 자리 수 성장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됐다.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간식점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면 총마진은 YoY 2.5%p 개선됐다. 가동률 증가 및 제품 믹스 개선에 기인한다.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14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에서 거래 중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다.

2026년 8월 26일 | Global Equity

유니프레지던트 (220.HK)

1H26 Re: 시장 기대치 부합

1H26 Re: 시장 기대치 부합

2026년 상반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73.2억위안(YoY 1.4%), 18.0억위안(YoY 9.5%)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① 음료 부문 매출액은 YoY -0.3% 감소했다. 음료 산업의 경쟁 심화 및 전년 높은 베이스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차 및 주스 매출액이 각각 YoY -3.5%, YoY -5.5% 감소했다. 반면, 밀크티 매출액은 YoY 7.3% 증가했다. 대표 제품인 ‘오리지널 밀크티’의 견조한 판매 및 저당 신제품 판매 호조에 기인한다. 음료 손익은 판촉 축소 및 원당 등 원가 부담 완화로 YoY 소폭 증가했다. ② 식품 부문 매출액은 YoY 4.7% 증가했다. 라면 시장 점유율 증가 및 제품 믹스 개선에 기인한다. 5위안 이상 제품 판매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위안 이상 프리미엄 제품도 견조한 판매를 시현했다. 식품 손익은 가동률 상승 및 제품 믹스 개선 기인해 YoY 1.0%p 상승했다.

연간 가이드스 매출 성장률 6~8% 유지

유니프레지던트는 중장기 연간 매출액 YoY 6~8% 성장 가이드스를 유지했다. 연간 총마진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 발표에 따르면, 7월 음료 매출은 YoY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및 간식점 등 신성장 채널로의 믹스 개선 전략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 수익성 측면에서 PET 등 일부 원부자재 비용 부담이 존재하지만, 가격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반기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관리가 주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13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에서 거래 중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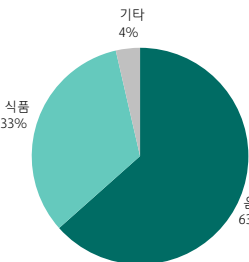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8.94 HKD
CP(8.25) 7.77 HKD

Key Data

국가	CHINA
상장거래소	Hong Kong
산업 분류	필수소비재
주요 영업	식품
홈페이지	www.uni-president.com.cn
시가총액(십억PY)	33.6
시가총액(조원)	5.9
52주최고/최저(PY)	9.82/6.63
주요주주 지분율(%)	
Uni-President Enterprises Corporation	70.49
KAI YU INVESTMENT CO LTD	2.0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8.1 (1.0) (16.0)
상대	5.9 3.0 (14.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0,332	31,714	32,888	34,353
영업이익	2,244	2,565	2,644	2,819
순이익	1,849	2,050	2,178	2,316
EPS(CNY)	0.4	0.5	0.5	0.5
EPS(YOY, %)	10.9	10.9	6.8	6.5
ROE(%)	13.8	15.2	16.1	17.0
PER(배)	17.1	15.4	13.4	12.6
PBR(배)	2.4	2.3	2.1	2.1
배당률(%)	5.8	6.5	7.5	7.9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24	281,500	257,000	-8.7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물산 (028260.KS)	8/24	395,500	367,000	-7.21%	- 원전·SMR·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신사업 확대와 2027년 배당 증가 전망 2026~2028년 계열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NAVER (035420.KS)	8/24	222,000	220,500	-0.68%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대한항공 (003490.KS)	8/24	25,800	26,300	1.94%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KCC (002380.KS)	8/24	484,000	454,000	-6.20%	- 삼성물산 특별배당 수취액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재환원하는 정책 신설 - 자사주 소각과 특별배당 6조원 규모 주주환원 강화에 더해 실리콘 업황 업사이클 진입
DN오tom티브 (007340.KS)	8/24	44,200	48,550	9.84%	- 글로벌 공장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향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농심 (004370.KS)	8/24	432,500	451,000	4.28%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복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SK이티닉스 (475150.KS)	8/24	51,300	55,200	7.60%	3Q26부터 연료전지·풍력 프로젝트와 솔라닉스 후속 사업의 매출 인식 확대 - SK그룹 및 반도체·데이터센터향 재생에너지 PPA 수요 확대 수혜 가능성
실리콘투 (257720.KQ)	8/24	47,650	51,900	8.92%	- 미국·유럽 오프라인 리테일러 주문 확대에 힘입어 2Q26 호실적 기록 - 한국 화장품 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체
티에프이 (425420.KQ)	8/24	40,800	44,700	9.56%	- cpo, socamm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 고객사 다변화로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 테스트 수요 성장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 지속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88%	+4.33%p	+73.11%	+13.0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89,000	6.64%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 동시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20,500	-3.29%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02,000	0.46%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 중등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주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19,000	13.0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6,380	5.63%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57,000	-2.1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62,000	19.2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87,600	23.03%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어진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25,000	2.97%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6,400	-9.76%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430,000	27.79%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4.72%	+2.92%p	+42.50%	-17.5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810	-8.6%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005	-20.8%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8,860	31.5%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9,180	-7.2%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70	-7.1%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9,735	-7.3%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800	-8.8%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9,410	-16.3%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5.58	-3.2%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6.15	-2.3%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3.23	0.2%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5.90	14.2%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46.80	67.7%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76.71	54.28	-29.2%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8.20	-2.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4.17	5.1%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E 104.5, 이전치 106.8)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0.2%, 이전치 0.3%)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E -1.4%, 이전치 1.6%) - 미국 8월 컴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E 90.2, 이전치 90.8)	- 미국 7월 개인소득 (E 0.2%, 이전치 0.2%)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E 0.1%, 이전치 0.3%) - 미국 7월 PCE (E 3.6%, 이전치 3.7%) - 미국 7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3%)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0.5%, 이전치 0.5%)	- 한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2.75%) - 중국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5.1%) - 일본 7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50.4%) - 미국 7월 도매 재고 (E 0.2%, 이전치 0.2%)	- 일본 7월 실업률 (E 2.5%, 이전치 2.5%)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E 51.0, 이전치 51.0)	
8.30	8.31	9.1	9.2	9.3	9.4	9.5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5.8%) - 일본 7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4.1%) - 중국 8월 제조업 PMI (E 49.8, 이전치 49.2) -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9.0)	- 한국 8월 수출 (E --, 이전치 62.9%) - 한국 8월 수입 (E --, 이전치 26.5%) - 일본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 한국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1)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9)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2.9%) - 유로존 7월 실업률 (E --, 이전치 6.3%) - 미국 8월 ISM제조업지수 (E --, 이전치 55.6)	- 한국 8월 CPI (E --, 이전치 2.8%) -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E --, 이전치 44k)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3) -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 미국 8월 ISM서비스업지수 (E --, 이전치 55.6)	-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 (E --, 이전치 -23k) - 미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4.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년대비(PCE 디스플레이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